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

접종후 이상반응자 대상...접종 다음날 1일, 이상 반응시 1일 추가 정부, 유급휴가 활성화 독려...접종자 32.8% "접종후 불편함 겪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요양병원 20개소에서 약 1.4%(5천400여명 중 75명)의 환자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

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데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 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진단서·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백신 휴가는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 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받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에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미디어 파사드 '빛의 나무'

지난 26일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장 광장에서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빛의나무' 미디어 파사드 작품 시연회가 열렸다.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광주 동전노래방 관련 16명 확진...대학 기숙사 학생 1명도 추가

전남, 일 확진자 한자릿수 안정세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유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크게 줄어든 광주시에서는 동전노래연습장 관련 추가 확진자들이 총 16명으로 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동전노래연습장 관련 추가 확진자 가운데 광주 한 대학 기숙사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학생은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동구 한 동전노래방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다. 방역 당국

은 기숙사 학생 118명에 대한 전수 검사(음성 95명, 검사 중 23명)를 하고 있으며 이 학생과 같은 층에 사는 65명을 격리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여전히 안정적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줄곧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는 일 최대 확진자가 2명에 그쳤고, 이 기간 중 9일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방심할 경우 급속히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책을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행복시대...현장서 답 찾으려 노력"

김영록 전남지사, 순천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집수리 봉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순천 별량면 용안 마을을 찾아 사회취약계층 불편 해소 위해 운영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일일 대원으로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복지기동대원, 소방서,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협력기관과 함께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돌다니며 보일러 수리, 소방 안전점검, 이불 빨래, 집 안 청소, 식료품 배부 등 모든 작업 활동에 참여했다. 이 불빨래 서비스 중 다리가 편찮은 할머니 댁까지 직접 이불을 지고 경사진 길을 오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 후에는 마을 평상에서 주민, 기동대원, 협력기관 직원 등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격려했다.

마을 이장은 "도정의 많은 일을 챙기느라 바쁜데 직접 집수리 작업까지 나서줘 평생 잊지 못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이 너무도 많으

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더욱 힘쓰면서 지사님 건강도 잘 챙기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현장을 살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어려운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 대표 복지정책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올해 서비스 대상과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전남행복시대를 앞당길 복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공약사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취약계층의 소규모 생활불편 개선 지원(100만원 이내),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지원(50만원)으로 7만147가구에 23억1800만원을 직접 지원했다. 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8406가구에 15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미안마군의 날' 하루 사망자 100여명 육박

군경, 비무장 시민에 무차별 총격...민주진영 "군부 수치의 날" 비판

'미안마군의 날'인 27일 미안마 전역에서 또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피가 뿌려졌다.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온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이날 하루에만 9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시민이 이날 스러졌다. 군경의 유혈진압 속에 민주 진영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소수민족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 양측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현지 매체 미안마 나우는 "미안마군의 날에 군부는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자체 집계로 40개 도시에서 9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양군, 만달레이, 사가잉, 바고, 마그웨, 카친 등 전국에서 발생했다. SNS에 현지인들이 올리는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100명이 넘는"는

게시물도 퍼지고 있다.

시위대는 '미안마군의 날'인 이날을 애초 이름인 '저항의 날'로 바꿔 부르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미안마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자국을 점령한 일본군에 대해 무장 저항을 시작한 날을 기념한 '저항의 날'은 1962년 군부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미안마군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고 있다. 국영 MRTV는 전날 밤 보도에서 시위대를 향해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을 알아야 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이날 무차별한 유혈 탄압이 벌어졌다.

현지 SNS에는 행인과 차, 오토바이 등을 향해 군경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 장면이 속속 올라왔다. 남부 다웨이 지역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군경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총격을 가하는 장면도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어린이 희생자들이 잇따랐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7살, 10살, 13살 아이들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군경의 유혈 진압에 대해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는 온라인 포럼에서 "이날은 군부 수치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지분 환영
당일처리. 010-6837-4700

잘 안팔리는 교환
전국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호천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플러스빌딩 501호

공 고 문

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식재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차반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인자로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TEL. 010-4904-2334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1년 3월 26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300,000,000원 중 297,000,000원을 감소하여 3,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29,700주를 회사와 주주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매입 후 임의의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를 300주(0.1%)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본 회사에 제출할 것과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 및 회고함.

2021년 3월 29일
주식회사 태영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표백길 50-10
대표이사 한규성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망 한상남(390814-XXXXXX)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용봉대로69번길 16(우산동)
·피상속인 망 한상남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비원 2020년1375호로 신청하여 2021년 3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3월 29일

·상속인 : 1. 김세영(660227-XXXXXX) 광주 북구 중문로 55, 303동 507호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2. 김득오(720216-XXXXXX) 나주시 대호길 76-8, 111동 1206호 (대호동, 대방노블랜드)

·신고기간: 2021. 3. 29. ~ 2021. 6. 7.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2. 김득오의 주소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역내선

북 구	·통 266-1920	·문 266-1960
	·광 525-3761	·인 222-9171
	·광 571-7658	·오 266-7801
	·통 433-1503	·우 433-1503
동 구	·남 673-6836	·통 222-9054
	·동 225-8001	·통 222-9054
	·통 222-8171	
남 구	·남 673-6836	·벽 651-1833
	·봉 673-6836	·송 675-6605
	·진 671-7276	
서 구	·광 382-5788	·상 372-2352
	·서 369-1625	·문 376-7153
	·치 376-6511	·통 603-0311
	·화 369-1625	
광 산 구	·문 952-1687	·월 959-1920
	·첨 단 973-2900	·하 955-0451
	·광 944-0444	